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희철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Performance and Correlation in Social Enterprises

Hee-Chul Kim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219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다중선형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검증하고,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 중 인증연수 및 외부지원 수혜액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형태와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 중 인증연수와 외부지원 수혜액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조직형태의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유형과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이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증연수별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factors which influenc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factors affecting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hypothesis that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organizational type, certification type, certification year, social service supply type, and external grants) of social enterprises affect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that significant correlation exist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collected the disclosure materials of 219 social enterprises certified between 2007- 2014 from the directory of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social performance(i.e. jobs for the vulnerable classes). In addition, certification year and external g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Secon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economic performance(i.e. sales), and certification year and external g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However, organizational typ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i.e. sales). Third, analysis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of factors affecting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diversif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authentication years in order to promote self-reliance and sustainability by maximizing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Keywords : Correlation of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actors, Social Enterprise, Social Performance

본 논문은 2017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ee-Chul Kim(Chungwoon Univ.)

Tel: +82-32-770-8231 email: hckim@chungwoon.ac.kr

Received June 19, 2017

Revised July 6,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과정 중 제3섹터가 부각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및 소외계층 증가 등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사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국가의 위기와 늘어나는 사회적 수요의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분석도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는 사회적기업 역사의 일천성과 자료접근성의 문제, 이용 가능한 실증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그치고 있으며, 실증연구의 경우에도 한 두 개의 성공 사례나 제한된 표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검증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검증하고,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219개 사회적기업 경

영공시자료를 토대로 다중선형 회귀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2.1 연구가설의 설정

2.1.1 영향요인 검증 가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혼성조직의 특성 때문에, 조직특성요인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남이와 박능후(2011)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경기도 소재의 예비인증 사회적기업과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업체 75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성과의 경우 사람과 고용 요소를, 경제적 성과의 경우 순편익을 유일한 구성요소로 검토하였고, 특히 유급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사회적 성과의 중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2].

장영란, 홍정화와 차진화(2012)는 사회적기업의 구성원 특성요인과 사회적기업의 기업 특성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최고경영자의 역량이나 종업원의 역량이 높을수록, 회계시스템의 운영이 좋을수록, 사회적기업 인증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종업원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가 교육과정을 이수할수록, 회계시스템의 운영이 좋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일수록, 사회적기업 인증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적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조상미, 권소일과 김수정(2012)은 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조직요인(전략적 요인, 경영지원시스템, 외부환경, 조직문화, 조직형태, 인증유형, 사업업종, 기업경로 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의 전략적 요인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4].

김정인(2014)은 2013년 사회적기업 자율공시제도에 참여한 81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직특성(조직형태,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등) 및 지원유형(정부지

원, 기업후원 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조직특성 중 조직형태,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유형에서 각각 성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5].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조직형태, 인증유형, 사회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인증연수, 외부지원 수혜액 등의 조직특성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특성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조직형태는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인증유형은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서비스 업종은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인증연수는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외부지원 수혜액은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특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조직형태는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인증유형은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사회서비스 업종은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인증연수는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외부지원 수혜액은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상관관계 검증 가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혼성조직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6].

첫째,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인지, 부(-)의 관계인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성기(2009)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목적 달성 또는 사회적 성과를 나타내는 사회적기업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Orlitzky, Schmid와 Ryness(2003), Wu(2006), 육근호(2011)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0].

반면에, 최조순과 강병준(2012)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비율)와 경제적 성과(기업 수익률) 영향관계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수준을 높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현상 딜레마를 실제로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 또한 장영란, 홍정화와 차진화(2012)의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관련성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시 경제적 성과도 사회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리고 박수지와 엄태영(2010)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가 모순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한편, Chen과 Metcalf(1980)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3].

둘째,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서로 다른 상호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이 어떠한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Ulman(1985)과 Berman(1999)은 사회적 성과 증대가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는데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Preston과 O'Bannon(1997)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 실현 활동은 경제적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속성을 갖으며 경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2 연구설계

2.2.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를 모두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속변수는 사회적 성과요인으로 취약계층 고용을, 경제적 성과요인으로 매출액을 선택하여 측정하고, 독립변수는 조직형태, 인증유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업종(제공유형), 인증연수, 외부지원 수혜액 등 조직특성요인들을 선택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요인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요인인 매출액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모형을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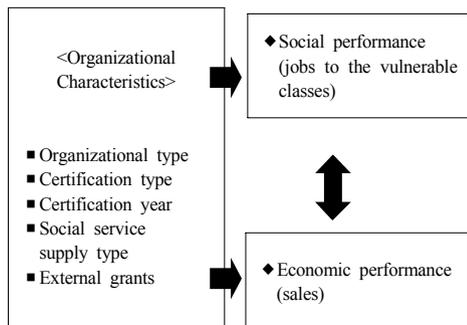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2 변수의 설정과 측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

출인 바, 취약계층 고용을 사회적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성과로 보고, 이를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일반 비영리 단체와는 달리 기업으로서의 속성도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로서, 매출액이나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는 바, 여기서는 매출액을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형태,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업종, 인증연수, 외부지원 수혜액 등을 조직특성요인으로 선정하여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측정 변수와 지표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Measurement Variables and Index

Variables		Measurement Index
Dependent Variables	Sales (unit: million won)	1: Less than 300 2: Greater than 300~less than 600 3: Greater than 600~less than 900 4: Greater than 900~less than 1200 5: Greater than 1200
	Jobs to the vulnerable classes	Ratio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al type	0: Non-profit organization 1: Profit organization
	Certification type	1: Job supply 2: Social service supply 3: Community contribution 4: Mixed 5: Other
	Social service supply type	1: Education 2: Health & care 3: Social welfare 4: Environment & cleaning 5: Culture, arts, tourism 6: Other
	Certification year	Ratio variables
	External grants	Ratio variables

2.3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219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다중선행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경제적 성과)과 취약계층 고용(사회적 성과)을 종속변수로, 조직형태와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업종(제공유형), 인증연수, 외부지원 수혜액 등의 조직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한다.

3. 실증분석

3.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in	Max	Mean	Std. Dev.
Organizational type	219	1.00	2.00	1.25	.435
Certification type	219	1.00	5.00	1.89	1.484
Certification year	219	1.00	8.00	3.03	2.199
Social service supply type	219	1.00	6.00	4.03	1.825
External grants	219	.00	1991495.00	1499112.32	2.184
Jobs to the vulnerable classes	219	.00	265.00	18.70	32.144
Sales	219	1.00	5.00	2.77	1.616
Effective sample	219				

3.2 가설검증

3.2.1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 가설검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증연수 및 외부지원 수혜액의 p값이 0.01이하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준화 계수(베타)를 보면, 인증연수와 외부지원 수혜액의 경우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형태,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업종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조직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관련한 연구가설 중 가설 1-4와 가설 1-5가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3. Results of Social Performance Analysis

N = 219	Coefficient of standardization	t	p>z
R-square = 0.268	β		
(constant)	17.130	8.356	.042
Organizational type	-8.032	4.876	.101
Certification type	.069	1.377	.960
Certification year	2.821	.914	.002*
Social service supply type	-1.773	1.070	.099
External grants	6.762	.000	.000*

Note: * indicates p<0.0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업이 경영적 측면에서 안정되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고용이 신규 사회적기업에 비해 많을 것이라 예측했던 것처럼, 실제로 인증연수가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지원 수혜액의 경우도 취약계층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외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외부지원금은 취약계층 등 저생산성 근로자 고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생산이나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 조직형태보다 비영리 조직형태가 취약계층 고용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증유형의 경우도 유의수준이 0.960으로 취약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다른 유형이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서비스 업종(제공유형)은 유의확률 90.9%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표준화계수(베타)값이 -1.773으로 취약계층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인증유형과 같이,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업종(제공유형)들이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의 서비스업종은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취약계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는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2.1 경제적 성과의 영향요인 가설검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형태, 인증연수, 외부지원 수혜액 등이 0.05이하의 P값을 나타냄으로써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화 계수(베타)를 보면, 인증연수와 외부지원 수혜액의 경우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형태의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인증유형과 사회서비스 업종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정한 조직특

성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과 관련한 연구 가설 중 가설 2-4와 가설 2-5가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지 오래된 기업은 신규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사회적기업이 신규 사회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되어 있어 매출액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높은 매출액을 보였다. 이는 외부지원금이 설비의 증축이나 인력 충원 등에 투자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직형태의 경우 영리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이익 추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매출성적을 낼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높은 매출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영리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이나 하는 조직형태가 아니라, 조직의 이익추구 성향과 함께 개별 구성원들의 전문성, 업무몰입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인증유형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도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인증유형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구하는 서비스의 성격상 조직운영이 효율성보다는 사회적·민주성을 띠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업종에 따라 사회서비스보다 제조업 등의 사회적기업이 높은 매출액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제로 사회서비스 업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 조직특성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의 채택여부를 정리해 보면, 사회적 성과와 관련한 가설 1-4와 가설 1-5,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가설 2-4와 가설 2-5가 채택되었다.

Table 4. Results of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N = 219	Coefficient of standardization	t	p>z
R-square = 0.244	β		
(constant)		6.088	.000
Organizational type	-.149	-2.119	.029*
Certification type	-.094	-1.434	.153
Certification year	.428	6.643	.000**
Social service supply type	-.039	-.625	.532
External grants	.187	2.804	.006**

Notes: 1. * indicates 0.01<p<0.05
2. ** indicates p<0.01

3.3 상관관계 가설검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와 경제적 성과(매출액)가 0.001 수준에서 양쪽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0.438로 양의 두 가지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여기서 정(+)의 상관관계는 취약계층 고용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취약계층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이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추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ocial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Classification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Jobs to the vulnerable classes	Correlation coefficient	1	.438
	p N	.000 219	.000 219
Sales	Correlation coefficient	.438	1
	p N	.000 219	.000 219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 219개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다중선형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을 검증하고,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 중 인증연수 및 외부지원 수혜액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형태와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 중 인증연수와 외부지원 수혜액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조직형태의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증유형과 사회서비스 업종(제공 유형)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이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증연수가 오래될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증연수별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설문조사나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분석했던 것과 달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인증받은 모든 사회적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단지 취약계층 고용과 매출액만으로 측정하여 분석

하는 등 측정변수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점, 이러한 성과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요인들을 통제하지 하지 못한 점, 적합한 지표선정의 한계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성과 평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적절한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 자율경영공시 기업과 비공시기업 간의 성과 비교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References

- [1] H. C. Kim,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8, no. 7, pp. 1797-1812, 2015.
- [2] N. Y. Sun, N. H. Park, "The Analysis of the Factors Effecting the Socio-economic Results of the Social Enterprise",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5, no. 2, pp. 141-164, 2011.
- [3] Y. R. Chang, J. H. Hong, J. H. Cha,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vol. 30, no. 2, pp. 175-207, 2012.
- [4] S. M. Cho, S. I. Kwon, S. J. Kim, "Do Organizational Factor Influence the Outcome of Social Enterpri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4, no. 3, pp. 29-50, 2012.
DOI: <https://doi.org/10.20970/kasw.2012.64.3.002>
- [5] J. I. Kim, "A Study on the Performance Difference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pport Type of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the Social Enterprises Notifying Management Information Autonomously",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81-212, 2014.
- [6] S. P. Cho, S. H. Son,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24, no. 4, pp. 121-156, 2009.
- [7] S. K.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s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Issues & Implications",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2, pp. 139-166, 2009.
DOI: <https://doi.org/10.15855/swp.2009.36.2.139>
- [8] M. Orlitzky, F. L. Schmidt, S. L. Ryness,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A Meta-Analysis", *Organization Studies*, vol. 24, no. 3, pp. 403-441, 2003.
DOI: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211593.003.0005>
- [9] M. I. Wu,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nd Firm Size: A Meta-Analysi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vol. 8, no. 1, pp. 163-171, 2006.
- [10] G. H. Yook, "The Analysis of the Circulation Loop of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 Productiv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Productivity Review*, vol. 25, no. 1, pp. 27-40, 2011.
DOI: <https://doi.org/10.15843/kpapr.25.1.201103.27>
- [11] J. S. Choi, B. J. Kang, “A Study on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in Seoul”, 2012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pp. 401-420, 2012.
- [12] S. S. Park, T. Y. Um,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Aims of Social Enterprise and Interaction Effect of It’s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0, no. 1, pp. 287-311, 2010.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0.30.2.287>
- [13] K. Chen, R. W. Metcal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Control Record and Financial Indicator Revisited”, *American Review*, vol. 55, pp. 168-177, 2010.
- [14] A. Ulmann, “Data in Search of a Theor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erformance, Social Disclosure and Economics Performance of U. S. Fir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0, no. 3, pp. 540-557, 1985.
- [15] S. L. Berman, A. C. Wicks, S. Kotha, T. M. Jo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Management Models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2, no. 5, pp. 488-506, 1999.
DOI: <https://doi.org/10.2307/256972>
- [16] L. Preston, D. O’Bannon, “The Corporate Social 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A Typology and Analysis”, *Business and Society*, vol. 36, no. 4, pp. 419-429, 1997.
DOI: <https://doi.org/10.1177/000765039703600406>

김 희 철(Hee-Chul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 199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 1990년 9월 ~ 1994년 12월 : 한국능률협회, 유엔지역개발센터 연구위원
- 1995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국제경영, 국제마케팅